섬유에는 꿈이 있다

지난 7월 26일 일본의 혼다(本田)는 소형 비즈니스 제트기 사업에 참가한다고 발표하였다. 혼다는 1986년부터 실질적으로 연구를 시작하면서 2륜의 오토바이크로부터 4륜의 자동차로 사업 영역을 넓히며, 레이스 카 활동으로 혼다의 이름을 세계에 넓혀 오는데도 약 20년이 걸렸다.

혼다는 1962년 소형 비즈니스 제트기 사업에 참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44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자력으로 준비가 끝나 비로소 정식으로 소형이지만 제트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한편 섬유 업계에서는 의류용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 내 산지들이 해가 갈수록 해외의 중저가품과 경쟁을 하다 보니 쇠약해져, 앞날에 대한 꿈을 찾아내기도 어려운 형편이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후쿠이(福井) 대학 대학원 공학 연구과의 호리 교수는 섬유에는 꿈이 있다고 분명히 장담하였다. 호리 교수에게는 많은 섬유 소재 메이커로부터 공동 연구 의뢰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공동 연구 의뢰 건수는 연간 20건 이상이 된다고 한다. 그러니 연구실도 자연히 활기가 넘쳐흐를 수밖에 없다.

섬유를, 온도와 압력의 임계점을 넘은 영역에서 고기능화 연구를 하고 있으며, 또한 전자선을 쪼여주면서 고기능화하는 연구 등을 추진해 왔는데, 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섬유 학계에서는 염색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왔던 폴리프로필렌 섬유를 염색할 수 있게 처리하는 데 성공하였고, 폴리유산 섬유의 내열성을 향상시키는 등과 같이 섬유의 새로운 가능성이 그곳에서 솟아나고 있다.

신기술의 개발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여 ‘섬유에는 꿈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투지를 잃지 말고 도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